

2010년 서울시 7급 국어 문제
hohosam.com

1. 밑줄 친 말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?

- ① 요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.
- ②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부페에 갔다 왔어.
- ③ 친구들이랑 렌트카로 강원도를 일주하고 왔지.
- ④ 라면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만니아잖아.
- ⑤ 요즘 방송국에서는 스탤이 많이 부족하다더군.

2. 국어 어문규범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가 ‘-요’로 소리 나는 경우에는 ‘-요’로 적는다.
- ④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- 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.

3. 다음 중 ㉠~㉣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틀린 것은?

사이시옷 현상
1. 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에서
㉠ ㄱ.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
㉡ ㄴ. 뒷말의 첫소리 ‘ㄴ,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
㉢ ㄷ.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
2.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에서
ㄱ.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
㉣ ㄴ. 뒷말의 첫소리 ‘ㄴ,ㄹ’ 앞에서 ‘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
㉤ ㄷ.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‘ㄴㄴ’ 소리가 덧나는 경우

- ① ㉠ 컷밥 ② ㉡ 훗날 ③ ㉢ 나뭇잎
- ④ ㉣ 제삿날 ⑤ ㉤ 예삿일

4. 한자성어 중 잘못 표기된 것은?

- ① 양상군자(梁上君子) ② 속수무책(束手無策)
- ③ 건강부회(牽強附會) ④ 천생연분(天生緣分)
- ⑤ 임기응변(任期應變)

5. 다음 중 ()안에 들어갈 말과 발음으로 옳은 것은?

(단, []는 발음을 나타냄)

- ① 짧네요 [잘레요] ② 짧네요 [짹네요]
- ③ 짧네요 [짹네요]
- ④ 짧으네요 [잘브네요]
- ⑤ 짹브네요 [잘브네요]

6. 다음 어휘를 한자로 바르게 쓴 것은?

* 고문: 죄를 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면서 심문하는 것
* 감상: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경향
* 총서: 일정한 제목이나 형식으로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
* 섭리: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

고문 감상 총서 섭리

- | | | | | |
|---|----|----|----|----|
| ① | 顧問 | 感想 | 總書 | 變理 |
| ② | 顧問 | 感傷 | 叢書 | 變理 |
| ③ | 顧問 | 感想 | 總書 | 攝理 |
| ④ | 拷問 | 感傷 | 叢書 | 攝理 |
| ⑤ | 拷問 | 感想 | 總書 | 攝理 |

7. 밑줄 친 부분이 간접높임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?

국어의 높임법에는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의 두 가지가 있다. 간접높임이란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.

- ① 과장님은 외출 중이십니다.
- ② 그 분께는 따님이 계십니다.
- ③ 어르신,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잡수세요.
- ④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?
- ⑤ 아버님, 할아버님께서 오라십니다.

8. 어느 소설의 일부분이다.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.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. 바다를 본다. 큰 새와 꼬마새는 바다를 향해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. 바다,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. 부채꼴 사복까지 뒹굴음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. 제 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.

- ① 최인훈의 1960년작 ‘광장’이다.
- ② 이 소설의 중요한 관념은 ‘광장’과 ‘밀실’이다.
- ③ 공간적 배경은 중립국인 인도로 향하는 배의 선상이다.
- ④ 주제는 광장 속에 갇힌 인간군상의 실존적 고민이다.
- 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.

9. 밑줄 친 부사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바야흐로 21세기는 녹색성장의 시대라고 하겠다.
- ② 11월이 다 지났으니 곧 겨울방학이 되겠다.
- ③ 그 친구가 드디어 고시에 합격했다.
- ④ 아직도 그 이야기를 믿고 있니?
- ⑤ 조금만 기다려. 곧방 갈게.

10. 다음 대화의 ()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?

팀원: 팀장님, 홍길동 씨 아버님 생일잔치에 가져갈 축의금 봉투인데요. 무어라고 써야 하지요?
 팀장: 작년에 만 60세를 맞으셨을 때, 병환으로 잔치를 못 했다고 했으니, 이번에는 ‘祝 ()’이라고 해야겠지.

- ① 古稀 ② 米壽 ③ 進甲 ④ 華甲 ⑤ 喜壽

11. 밑줄 친 한자어의 표기가 틀린 것은?

- ① 무슨 根據로 그렇게 주장합니까?
- ② 언제 機會가 닿으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
- ③ 그 문제 提起가 장시간을 끈 토론으로 번졌다.
- ④ 餘裕가 있으면 나 같은 상대도 대상자로 고려해 줘.
- ⑤ 땅도 안 부치는 놈이 무슨 軟膏로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지껄이는 거냐?

12. 다음 중 설화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설화문학에는 신화, 전설, 민담이 포함된다.
- ② 설화문학은 구비문학적 요소가 강하다.
- ③ 시간적, 공간적 배경이 정확하게 서술돼 있다.
- ④ 한국의 설화문학이 문자로 기록된 것은 고려시대 이후이다.
- ⑤ ‘삼국유사’는 한국 설화문학의 보고이다.

13. 다음 글이 속한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생원: 말뚝아.
말뚝이: 예예
생원: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, 상통이 무르익은 대초빛 같고, 울룩줄룩 배미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.
말뚝이: 그놈의 힘(심)이 무량대각이요, 날 램이 비호 같은데, 섣님의 전령이나 있으면 잡아올는지, 거저는 잡아올 수 없습니다.
생원: 오오, 그리하여라. 였다, 여기 전령 가지고 가거라. (종이에 무엇을 써서 준다.)
-- 봉산탈춤에서 --

- ① 가면극,인형극,그림자극 등이 있다.
- ② 산대희설, 기악설, 절충설 등의 기원설이 있다.
- ③ 풍자의 특성으로 인해 서민들의 인기를 모았다.
- ④ 농경의례, 장례의식 등 각종 원시 종교 의식에서 시작되었다.
- ⑤ 광대들의 참여로 오락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형식이 되었다.

14. 다음 ()에 들어갈 말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가. 정말 고맙습니다. 다음에 꼭 다시 한번 ().
나. 시험 공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니? 눈이 ().

- ㉠ ㉡
- ① 뵈요 빨강네
 - ② 뵈요 빨강네
 - ③ 뵈요 빨가네
 - ④ 뵈요 빨가네
 - ⑤ 뵈요 빨갼네

15. 1960년대 한국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신세대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다.
- ②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논쟁이 처음으로

시작되었다.

- ③ 실존주의 문학이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다.
- ④ 이범선의 ‘오발탄’ 황순원의 ‘카인의 후예’가 출간되었다.
- 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에 문학적 관심을 기울였다.

16. 다음은 훈민정음 초성자의 제자원리다.

㉠~㉡에 해당하는 문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?

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위치에 따라 아음,설음,순음,치음,후음으로 나뉘는데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. 기본자 중 ㉠ 아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, 설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, 순음은 입술을 오므리는 모양, 치음은 치아의 모양, 후음은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했다. 여기에 소리의 센 정도에 따라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㉡ 가획자를 만들었다. 그러나 이런 ㉢ 일반적인 제자방식에서 벗어난 글자도 있었다.

- 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㉠ | ㉡ | ㉢ |
| ① | ㄱ | ㄷ | ㅈ |
| ② | ㄷ | ㅌ | ㄹ |
| ③ | ㅍ | ㅍ | ㅇ |
| ④ | ㄱ | ㅈ | ㅅ |
| ⑤ | ㄷ | ㄹ | ㅈ |

17. 아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홍보가 하릴없이 형의 집에 건너갈 제, 제 의관을 한참 차려 모자 터진 헌 갖에다, 철재를 술로 감아 노갯끈 달아쓰고, 편자는 줌이 먹고, 앞춤에 구멍이 중중, 관자뿔 헌 망건을 물렛줄로 얹어쓰고, 깃만 남은 배 중치막을 열 두 도막 이른 술띠로 시장창게 눌러 매고, 헐고 헌 고의적삼에 살점이 울긋불긋, 목만 남은 길버선에 짚대님이 별자로다. 구멍 뚫린 나막신을 두 발에 잘잘 끌고, 똑 얻어 올 걸로 큼직한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 이 모양으로 관뻘 위에 짚어지고 별벌 떨며 건너갈 제 저 혼자 돌탄하여 “아무리 생각하나 되리란 말 아니나다. 모진 목숨 아니 죽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”

-- 신재효 <박타령>에서 --

- ① 3.4조, 혹은 4.4조의 가락이다.
- ② ‘오쟁이’에는 인물의 기대와 희망이 투사되어 있다.
- ③ ‘중치막’에는 과거의 높았던 지체와 벼슬이 나타나 있다.
- ④ ‘돌탄’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인물의 심리가 엿보인다.
- ⑤ 일상어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.

18. 다음 ()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?

<서울시 7급 해설과 정답>

1. ④ ‘마니아’가 맞다.
‘① 카페, ② 뷔페, ③ 렌터카, ⑤ 스태프’가 맞는 표기이다.
2. ②
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오’는 ‘요’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‘오’로 표기한다.
(예) 이리로 오시오.(×) → 이리로 오시오.

君之視臣如手足	則臣視君如(㉠)
君之視臣如犬馬	則臣視君如(㉡)

- | | |
|------|----|
| ㉠ | ㉡ |
| ① 賢者 | 朋友 |
| ② 恩澤 | 父親 |
| ③ 腹心 | 國人 |
| ④ 土芥 | 寇讐 |
| ⑤ 人倫 | 敬老 |

19. 다음 ()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것은?

() 닳 낭이다: 난봉이 나서 돈을 함부로 낭비함을 조롱하는 말
() 맞는 익모초 :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부화뇌동한다는 말
() 안개 속에 수숫잎 피듯 : 심술이 사납고 성질이 순순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
- ① 동풍 ② 서풍 ③ 남풍 ④ 북풍 ⑤ 북서풍

20. ‘가름하다’의 뜻풀이로 맞는 것은?

- ①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헤아려보다.
- ②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.
- ③ 구분하다.
- ④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다.
- ⑤ 다른 것으로 대신하다.

(○)

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(×) →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.(○)

④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
(예) 소쩍새, 어깨, 해쓱하다, 가끔, 거꾸로, 부쩍, 이따금

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

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.

(예) 똑딱똑딱, 찌걱찌걱, 유유상종(類類相從), 짹짹하다, 씹씹하다

3. ②

훗날 = ‘후(後)’ + ‘날’ ⇒ ‘라’의 경우에 해당한다.

① 귀+밥 → 궂밥[귀뺨 / 권뺨]

③ 나무+잎 → 나뭇잎[나문뺨]

④ 제사(祭祀) + 날 → 제삿날[제산날]

⑤ 예사(例事) + 일 → 예삿일[예산날]

4. ⑤

‘임기응변(臨機應變: 임할 임, 기회 기)’으로 표기해야 한다.

5. ①

겹받침 ‘려’의 대표음은 ‘ㄹ’이다.

짧네요[잘네요 → (유음화 : ‘ㄴ’은 ‘ㄹ’의 앞이나 뒤에서 ‘ㄹ’로 발음한다)잘래요]

6. ④

* 고문(拷 : 때릴 고, 問 : 물을 문)

‘고문(顧 : 돌아볼 고, 問 : 물을 문)’은 ‘의견을 묻다’의 뜻으로 쓰인다.

* 감상(感 : 느낄 감, 傷 : 상처 상)

‘감상(感 : 느낄 감, 想 : 생각 상)’은 ‘마음 속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’으로 ‘책을 읽은 감상을 적다’로 활용하여 쓴다.

* 총서(叢 : 모일 총, 書 : 글 서)

* 섭리(攝 : 당길 섭, 理 : 다스릴 리)

7. ④

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여 ‘의견이 있으시다’로 표현했다.

②은 높임법에 어긋난 것으로 ‘따님’을 간접 높임을 써서 ‘따님이 있으시다’로 써야 한다.

8. ④

소설 ‘광장’의 주제는 ‘이념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’이다.

9. ⑤

‘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’를 뜻하는 ‘곧’ 혹은 ‘금세’를 써야 한다.

→ 조금만 기다려. 곧 갈게.

‘금방’은 ‘말하고 있는 시점(時點)보다 바로 조금 전이나 같은 때’를 뜻한다.

10. ③

‘작년 만60세(61세) + 1년’이므로 ‘진갑(進甲) : 62세’을 써야 한다.

① 고희(古稀) : 70세

② 미수(米壽) : 88세

④ 화갑(華甲) : 61세(=만 60세) ‘회갑(回甲), 환갑(還甲), 주갑(周甲)’과 같은 용어.

⑤ 희수(喜壽) : 77세

11. ⑤

軟膏(연할 연, 기름 고) : 상처에 바르는 약. 여기서는 ‘緣故(인연 연, 까닭 고) : 이유, 사유를 뜻함’이 쓰여야 한다.

① 근거(根: 뿌리 근, 據 : 의지할 거)

② 기회(機 : 틀 기, 會 : 모일 회) * 機(틀 기) : 機械(기계)

③ 제기(提 : 끌다 제, 起 : 일어날 기) * 提(끌다 제) : 提供(제공), 提示(제시)

④ 여유(餘: 남을 여, 裕 : 넉넉할 유) * 餘(남을 여) : 剩餘(잉여), 餘暇(여가)

12. ③

한국의 고대설화가 문자로 정착된 것은 고려 때부터이며, 설화의 발생이 자연적이고, 내용이 상상적인 것이 많아 시간적, 공간적 배경이 정확하지 않다.

13. ⑤

새로운 형식이 된 것은 아니다.

14. ④

㉠ 뵈다(존칭의 뜻) : 뵈+어요 → 뵈요

㉡ 빨갳다 : 빨갳+네 → 빨가네 ('ㅎ'불규칙 용언 : 'ㅎ'이 탈락하면서 어미도 변화)

15. ①

약간 애매한 문제이지만, 답을 고르라면 확실한 ①번을 고르자.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다.

<해설> ② '처음'이란 말이 애매하다.

③ 1950년대 특징, ④ 이범선 '오발탄'(1959), 황순원 '카인의 후예'(1953)

16. ④

㉠ 훈민정음 초성자는 'ㄱ, ㄴ, ㄷ, ㄹ, ㅇ'인데 이 중 '아음'은 'ㄱ'이다.

→ ㄱ(아음), ㄴ(설음), ㄷ(순음), ㄹ(치음), ㅇ(후음)

㉡ 가획자 : 기본자에 획을 더함 : <ㄱ → ㅋ>, <ㄴ → ㄷ, ㄸ>, <ㄷ → ㅌ, ㅍ>

<ㄹ → ㄺ, ㄻ>, <ㅇ → ㅎ, ㅁ>

㉢ 일반적인 제자방식에서 벗어난 글자 : '이체자'로 기본자의 예외자이다.

→ ㅅ(아래 아), ㄹ(반설음), ㅊ(반치음)

17. ③

'중치막'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가 입던 옷의 일종이다.

② 오쟁이 : 찢으로 만든 작은 섬

본문에 나온 부분은 홍보가 형의 집에 곡식을 꾸러 가기 위해 의관(옷)을 차려입고 오쟁이를 짚어지고 가는 장면으로, '뚝 얻어올 길로 큼지막 오쟁이를 평양 가는 어떤 이 모양으로 관뻐 위에 짚어지고'는 '곡식을 많이 얻어올 것처럼 찢으로 만든 섬을 짚어지고 간다'는 뜻으로 이는 곡식을 담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다.

④ 돌탄 : 혀를 차며 탄식하다

18. ③

(가) 군지시신여수족 즉신시군여복심 : 임금이 신하 보기를 자신의 손과 받처럼

중요하게 여긴다면 신하는 임금을 자신의 배와 심장처럼 여길 것이다.

(나) 군지시신여견마 즉신시군여국인 : 임금이 신하 보기를 개나 말처럼 여긴다면

신하는 임금 보기를 일반 백성처럼 여길 것이다.

19. ①

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어휘는 '동풍'이다.

20. ③ 가름하다 : 사물이나 상황을 구분하거나 분별하는 일

(예) 이 일에 대해서는 가름이 잘 되지 않는다.